



# 문화매일신문



제1563호

2024 / 4 / 9 / 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경북도, 드라마·영화 촬영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 도·상주시·엔피오Ent,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체결 상주 낙동강 부지에 조선시대 한강 마포나루터 세트장 설치 촬영 스태프 등 200여 명이 6개월 동안 지역에 머물며 30억 이상 소비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지난 5일 상주시청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강영석 상주시장, 표종록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엔피오엔터테인먼트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제작 환경 조성'과 상호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뜻을 모았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도와 상주시가 드라마 촬영을 위한 부지 제공, ▲제작사의 지역 홍보와 콘텐츠 활용, ▲작품 제작 인력과 자원의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공급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에 함께한 엔피오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창립한 회사로, MBC의 '웃소매 붉은 굴드', JTBC의 '기상청 사람들', '킹더랜드', 넷플릭스의 '너의 시간 속으로', TVN의 '정년이(하반기 방영예정)' 등 유수의 인기 작품을 만든 역량 있는 제작사이다.

엔피오가 제작하는 이번 작품은 상주시 낙동강 부지에 조선시대 물류와 경제의 중심인 한강 마포 나루터를 구현하는 가상 역사극으로, 4월부터 세트장 설치에 들어가 스태프와 배우 등 200여 명이 6개월 동안 지역에 머물며 30억원 이상을 소비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에서 영화나 드라마 1편 제작 시, 제작진과 출연진이 하루 평균 80명에서 많게는 270여 명이 평균 15일 이상 체류하면서 제작비의 10% 이상을 숙박, 식당 이용, 장비 대여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작품 유치를 통해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영상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르면 상주는 경천선 관광단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1천 평 규모의 대형 실내 스튜디오와 크로마키형 야외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또, 300객실 규모의 민관합동 개발



형 호텔을 조성해 배우와 제작사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작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인 작품 유치뿐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들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K-영상 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스토리의 보고"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만의 독특한 문화 산업적 가치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컬처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에서의 영상 촬영이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영상산업의 창작과 기술력 중심 접근이 지역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종록 엔피오 대표는 "지역의 특별한 장소와 배경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매력을 담아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 5월 경계존중 인형극 '비눗방울을 조심해' 공연. 8일부터 접수

### 도, 경계존중 인형극 '비눗방울을 조심해' 프로그램 5월 중 4회 운영

경기도가 5월부터 공연하는 '경계존중 인형극-비눗방울을 조심해' 관람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

인형극은 5월 3일, 10일, 17일, 31일 총 4회에 걸쳐 파주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소년문화센터 체험관에서 진행되며, 6~9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관 캐릭터인 달콩이·달콩이를 활용해 개인 간 '경계', '동의를 거절' 등을 주제로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안전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울러 자신의 '경계'를 타인이 존중해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 위험이나 갈등 상황에 대처 능력을 길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 내용으로는 대상 연령의 눈높이에 맞게 서로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비눗방울로 표현해 또래끼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 간의 경계와 동의를 이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거절의 방법과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전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위험과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북부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비눗방울을 조심해' 경계 존중 인형극은 아동·청소년에게 익숙한 배경과 흥미로운 내용 전개로 매년 교육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인형극 관람 접수는 4월 8일부터 전화

(경기북부청소년문화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관람비는 무료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인형극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기부터 바람직한 성 지식을 배우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충남도, 실내공기질 사각지대 해소한다

충남도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56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측정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 △노인요양시설(1000㎡ 미만) △장애인시설 △경로당의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지원한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측정 항목은 총 8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

세균, 이산화탄소, 곰팡이, 라돈이다.

실내공기질이 중요한 일부 어린이집과 공공건물 중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해 실시간 측정한다.

관리기준 이내에 들어온 시설은 측정 결과치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을 도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유치해 관리 체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2012년부터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의무가 없는 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156곳을 포함하면 그동안 총 2820곳을 지원했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외부 공기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민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의 관리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민감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자동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전남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 온힘

### 다양한 매체 활용 단계별 홍보 추진으로 사전 분위기 조성



전라남도가 오는 5월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대회 분위기를 고조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

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전국 청소년 선수가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스포츠 대축제로, 올해는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규모의 대회인 만큼 홍보 효과가 큰 수도권 주요 요충지인 광화

문 광장, 용산역, 수서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 대형 전광판 홍보와 전국 순회 고속버스의 양 측면에 체전 홍보 이미지를 랩핑해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언론·방송, 온라인 상 파급효과가 큰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적극 활용해 체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체전 붐업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양 체전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5월에는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각 시군 주요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에 현수기, 홍보탑, 꽃탑, 애드벌룬 등을 설치, 지역을 방문하는 선수단을 환영하고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체전 기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에는 관광, 농수산, 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정 홍보관과, 경기 종목을 직접 체험할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최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개최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도 더욱 활기차고 풍성한 대회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1만 8천여 명이 참가해 22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천500여 명이 참가하며,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박종배/기자

# 16

## (주)문화매일신문

###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 경상남도의회 경남 도내 학교 시설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 추진

## 시설 이용 사용자 의무와 책임규정, 학교는 개방률 공개 내용 담아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학교 수업공간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생활체육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지역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의원은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시설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중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의 개방률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 시설물이 개방률이 낮은 이유는 시설물 관리의 책임과 안전사고의 요인이 크다. 이에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조례에 담아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에 참여하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현/기자



# 충남도의회, 점자문화 진흥 통해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점자출판물 보급 및 홍보 교육 지원 등 명시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충남도 및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누리집,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근/기자

#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개소식 참석,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기대

## 서울시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원의 전문적 체계적 의로서비스 구축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4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 은평구 갈현로7길 49)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념 개소식'에 참석하여 서울시 최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치매안심병원 개소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서관 3층 치매안심병동 현장을 시찰했다.

서북병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오던 치매전문병동을 2022년 치매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2024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시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 운영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담 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서북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병동 운영과 치매안심병동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고, 좀 더 규모 있고 전문적인 치매안심병원

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후 병동의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1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북병원 이창규 병원장과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동영 센터장, 시민건강국 김태희 국장 등과 함께 치매안심병원 지정 경과를 보고받고 치매 안심 병동 현판식을 함께한 후 치매안심병원 31병상과 심리

안정치료실(스누젤렌)을 비롯한 현장을 둘러보았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의 노인 치매안심병원이 개소되기까지 서울시 및 서북병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에 동반되는 망상, 배회 등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집중 치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길 기대한다"라며,

"서울특별시의회도 서북병원의 치매안심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 입원 관리를 위한 진료, 간호, 집중적 치료와 함께 치매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최광수/기자

#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복숭아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제19회 부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 개막식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7일, 제19회 부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네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춘덕산에는 불거리와 즐거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돼있다"라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고,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숭아꽃 축제 대체지를 찾고, 우리 시의 상징인 복숭아꽃을 부천시 곳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동일/기자



# 화성시의회, '움직이는 미술관' 두 번째 전시 이창환 사진전 '화성에 살다' 열려

화성시의회의 '움직이는 미술관' 두 번째 전시회가 화성시의회 로비에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0여 일간 열린다.

화성시의회는 화성 ESG 메세나(대표 송인현)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고 '움직이는 미술관'을 통해 화성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전시회는 이창환 작가의 '화성에 살다' 사진전으로, 남양호와 매항리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을 작가의 독특한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작품에 담긴 화성 바다의 소중한 풍경 속에는 새들이 등장한다. 마을 입구의 숲대 끝엔 새를 통해 작가는 화성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의

소망과 애환을 잔잔하게 전달한다.

김경희 의장은 "화성의 아름다움과 시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은 화성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만든다.

앞으로도 화성시의회 로비가 '움직이는 미술관'이 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작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화성이 예술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성 ESG 메세나는 작년 '화성 메세나 아트페어'를 통해 지역작가 30명의 작품 250여 점을 시민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 올해도 화성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마을 곳곳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미술관'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예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본 전시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양시현/기자



#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산강 문화 연구회' 지역 문화자원 활용 사례 선진지 견학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산강 문화 연구회'는 4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영산강이 가지고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것으로, 조영미·김정숙·김관용·이상만·이재남·최정기 연구회 의원들은 남원 시립 김병중 미술관, 혼불문학관을 방문했다.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나주 지역 예술인의 작업실·

전시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영산강을 따라 형성된 남도의 문화와 자연을 근간으로 한 문화관광 코스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영미 대표의원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 콘텐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영산강만의 매력있는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기반 구축을 위한 '영산강 문화연구회' 대표의원 조영미 연구회원 김관용, 김정숙, 이재남, 최정기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독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독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키니언부:내선 (118) 광고국: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미술관 -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간 문화 · 예술 · 교육 등의 콘텐츠 개발 및 기획 적극 노력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4월 5일 오전 11시 경기도미술관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첫 번째 협약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 개발과 문화예술 향유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 사업 협력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기간 중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의 협력 ▲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지원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참사 10주기가 되는 해로 경기도미술관에서 4월 20일, 21일 양일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기획한 '세월호 10주기 영화 프로젝트' 단편 유니버스 '세 가지 안부'와 '기억해, 봄'을 상영할 계획이다. 전 승보 경기도미술관 관장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미술관 관람객들에게 미술과 인접한 영화예술의 세계를 더욱 전문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미술관은 미술관이러는 큰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지

역사회의 많은 고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부분 경쟁 다큐멘터리 영화제이다. 분단국가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DMZ와 다큐멘터리의 만남을 통해 DMZ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 장르를 평화, 화해, 공존, 소통이라는 주제로 정하고 있다. 2009년 1회 영화제를 시작으로 매년 열려 2024년 16회를 앞두고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코레일 빠진 기후동행카드 협약은 허상"

이채명 경기도의원 "서울시는 진정성 보여주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 11개 노선부터 적용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안양6)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 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손실분 부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군포·고양·김포시와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군포·고양·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 과천·군포·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다. 김포지역을 운영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지분 100%)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의 대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면 서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부터 기후동행카드 적용하라고 고집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는 분당·성남 5개 노선, 일산·고양 3개 노선, 서울동행버스(출근시간 전용)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의 기후동행카드 적용은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합의 절차 없이 서울시가 노선별 단말기·시스템 적용만 하면 된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는 경기도 구간을 운행하는 일반(간선·지선)버스만 기후동행카드 적용하고 광역버스는 제외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부터 적용하라"고 말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 기본요금인 3,000원으로 일반버스의 2배다. 서울시가 광역버스의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게 이채명 의원의 비판이다. 이채명 의원은 최근 경기도를 통해 김포시 등에 협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나 과천시만 자료 제출했다. 이채명 의원은 "협약서 자체가 허상이니 도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숨기기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과천시 협약서는 재원 분담·시스템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울목중학교 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 정담회 가져

울목중학교 전입생 선 전학처리 등 해법 제시 및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4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울목중학교 학급 증설에 관한 지역 학부모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과천 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가졌다. 과천 울목중학교는 24년 3월 개교한 학교로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이 중 2학년 1학급이 30명이어서 2명 이상 전입시 배치기준 초과 학급증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포레드림, 리오 포레데시앙 1,152세대가 입주 중이며, 오는 4월 30일부터는 린파밀리에 659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학급 증설의 필요는 이미 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현석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도교육청에게 울목중학교 개교 및 전학 관련하여 질의했고, 도교육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학보 등의 어려움으로 학급 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의 일관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담회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정일영 사무관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학부모의 걱정과 의원님의 질타에 죄송하다며, 중학교 전입생 수를 파악하여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과천 교육지원센터 진우찬 배치팀장은 "의원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들을 우선 전입처리 하고, 정원외기간제, 순회교사 교원을 충원하는 등 학급 증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4월 30일부터 린파밀리에가 입주 예정이어서 빠른 학급 증설과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4월 9일까지 과천교육지원센터에서 중학교 전입생 수 파악 후 학급 증설에 필요한 교원총원절차를 진행하여 5월 중 학급 증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학교가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경기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에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와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이 경기교육

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보성 다향 대추제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풀, 하프, 10km, 5km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토) ~ 5. 6.(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민소리, 고수 경연대회, 추모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일) 보성군 일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리산 철쭉문화행사 5. 4.(토) ~ 5. 6.(일) 용지면 용반리 일리산 일원

제2회 보성대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토) ~ 5. 6.(일) 농협마트 주차장(보성역 옆)

2024 한국유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5. 4.(토) ~ 5. 5.(일) 유포수발전수욕장 2개 중대 12개부(유티미스트 10, 토바스 2)

보성의 프러포즈: 천년 차종의 유혹

2024. 5. 3. (금) ~ 5. 7. (화) 한국자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제, 전시 / 경연, 공연 등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자 조합 |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주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홍보캠페인 개최

여주시는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국산 목재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산 목재 이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들은 탄소중립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련 팸플릿을 배부하며 국산 목재 이용 시 탄소 저감효과의 우수성과 탄소배출량 저감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적극 홍보했다.

행사에 참여한 강중희 산림공원과장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과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여주시에서도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목재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국산 목재 이용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도교일렉트론코리아고영테크놀로지 등 유치

반도체 중심 도시 용인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속속 이주

용인특례시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교일렉트론(TEL) 한국법인의 투자를 유치했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검사장비업체 (주)고영테크놀로지의 본사가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전한다고 7일 밝혔다.

용인 이동·남상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용인이 반도체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용인 입주가 이뤄지는 것이다.

도교일렉트론코리아는 지난 3월27일 원삼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이곳 산업시설용지 4블록 2만 7032㎡(약 8177평)에 대해 업종 변경 등을 용인특례시에 신청했다.

도교일렉트론코리아는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신청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되면 연구동과 팹(Fab)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도교일렉트론코리아는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22 회계연도에 1조403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직원 1938명이다.

도교일렉트론코리아가 입주할 원삼 일반산업단지 규모는 10만 8919㎡다. 인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반도체 장비업체인 에스티아이와 반도체 소자 업체인 나눅스 등이 원삼일반산업단에 입주했다.

국내 굴지의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주)고영테크놀로지는 서울 본사와 지회사를 수지구 상현동 1188 고영테크놀로지 R&D센터로 통합·이전한다.

용인특례시는 관내 반도체기업 현황 파악 차원에서 지난 2월 (주)고영테크놀로지를 방문했고, 회사 측이 본사와 R&D센터를 통합할 의지가 있다고 하자 용인 입주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해 통합계획이 확정되도록 도왔다.

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서 이 회사가 용인 하반기 중 이

주를 마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고영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장비 전문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의료용 로봇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주)애플티는 처인구 모현읍 국현로 538-25 일대 2632㎡ 부지에 연면적 1710㎡ 규모 신축공장을 오는 8월 준공한다. (주)애플티는 지난 2023년 193억원의 매출을 올린 강소기업으로, 최근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 반도체 핵심장비인 포트레지스트 도포용 트랙(track) 장비를 설치해 운영키로 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에는 이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속속 이주해 오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분양 대상 37개 필지 중 31개 필지에 원익IPS 등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 인근의 용인테크노밸리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를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이 오는 7월에 신규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회사 램리서치 한국 본사가 용인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세계 6위 회사인 (주)세메스가 용인 기흥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데 이어,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교일렉트론 한국법인까지 투자를 결정해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훌륭한 반도체 기업들의 용인 입주를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현재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속도를 내며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로망과 철도망을 적극 확충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범상/기자

# 이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신활력대학 5기 개강

이천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4월 8일 '5기 이천시신활력대학'을 개강했다.

추진단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개인적 성장과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신활력대학에서는 '푸드아트심리상담사 자격증과정'과 '원예심리상담사 자격증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푸드아트심리상담사 자격증과정'은 음식과 예술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참가자들이 심리 상담의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게 하고 '원예심리

상담사 자격증과정'은 원예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와 상담의 효과를 배우게 되며 각 과정은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과정당 4주 동안 총 32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천시신활력대학은 참가자들에게 농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지역 사회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천시와 추진단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김범상/기자

# 수원시, '2024 수원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토대로 감염병별 관리대책 유기적 연결



수원시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토대로 수립한 '2024년 수원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질병관리청의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수원'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를 넘어 Disease X까지 대비'·'민·관 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은 4개 추진전략, 10개 핵심과제, 45개 세부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4개 추진 전략은 ▲감염병 위기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 및 감시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를 위해 하절기(5월 1일~9월 30일)에 운영하던 비상방역체계를 올해부터 동절기(1월 19일~2월 18일)에도 추가 운영했다. 국내외 유행 감염병을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현

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내실화한다.

또 감염병 전담 인력 양성·교육으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생물테러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관리' 전략에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호흡기 감염병,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결핵,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 한센병) ▲취약계층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등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방역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원격 모기감시 장치' 등을 운영해 방역체계·매개체 감시를 강화한

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표본감시체계와 304개의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관협업 확대 ▲지역사회 참여·소통 강화 ▲감염병 관리기관 관리,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으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국가 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법정감염병,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이 대폭 증가했다"며 "방역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공중보건 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표본감시체계와 304개의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관협업 확대 ▲지역사회 참여·소통 강화 ▲감염병 관리기관 관리,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으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국가 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법정감염병,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이 대폭 증가했다"며 "방역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공중보건 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고양특례시, 일본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민간 투자 유치에 힘써...매력적인 투자 환경 홍보

고양특례시가 지난 5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산하인시찰단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는 1953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상공회의소 '재일본 대한상공회의소 연합회'후신으로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약 347개의 기업이 소속된 일본의 대표적인 상공회의소이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고양시 주요 투자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창릉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및 고양경제자유구역, 기획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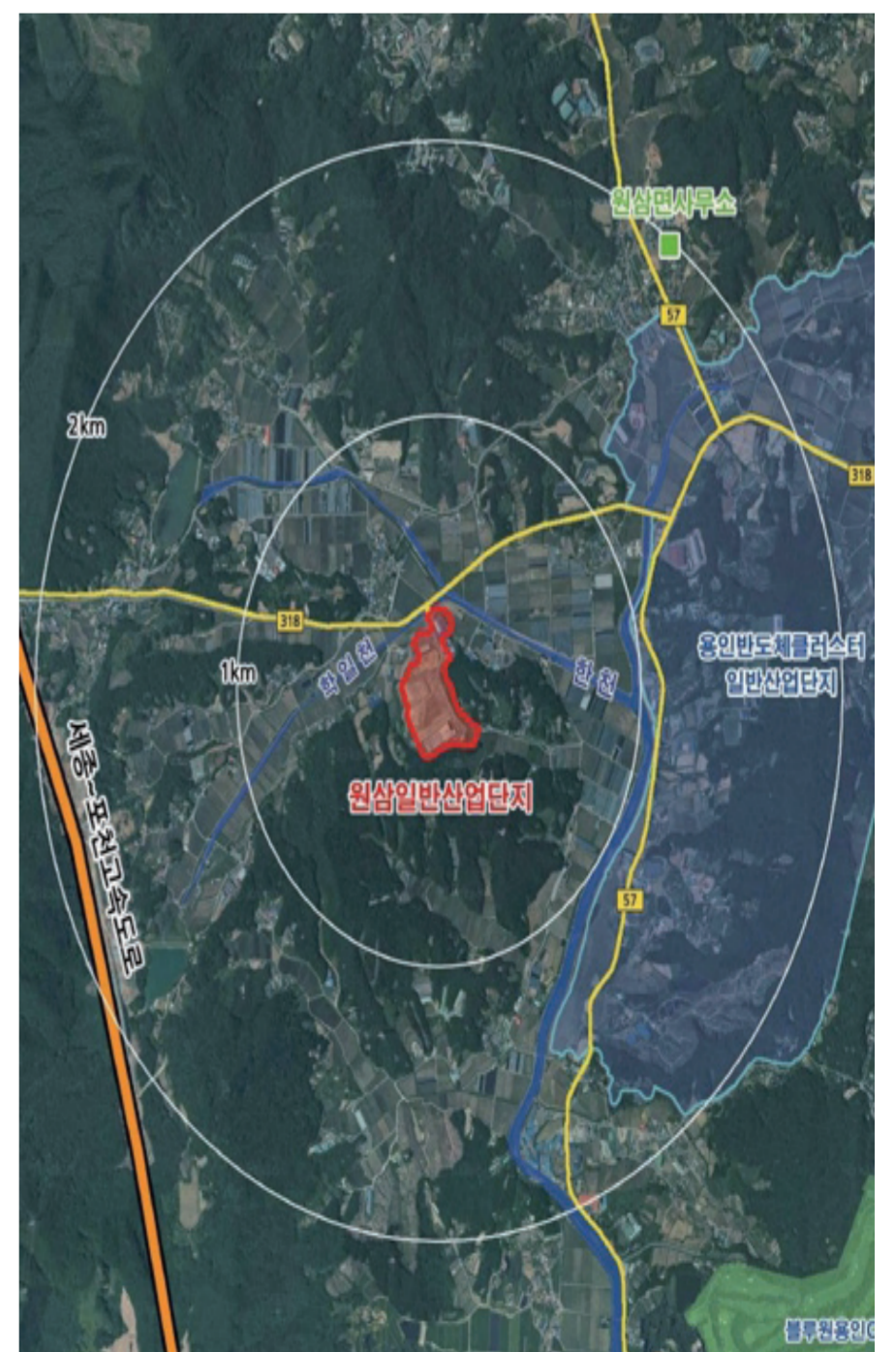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박양기 회장은 "교육, 문화, 교통 등 입지적으로 강점이 있는 고양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며, "회원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양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고양시와 오사카상공회의소는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 향후 업무협약을 통해 일본 외투자기업 유치를 적극 유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창릉3기 신도시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 광주시, 제79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개최

광주시는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18 임야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주 임록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강석오 광주 성남남하산림조합장, 공무원, 산림조합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 심기가 진행된 곳은 광주시와 광주성남하산림조합 간 2024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조림 사업지 중 하나다.

행사는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은 광주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조림용 묘목 자작나무 300주를 식재했다. 방 시장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가꾸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나무와 숲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 화성시환경재단, APS그룹과 함께 화성시 에코센터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 개최

APS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성공으로 마련한 수목 1,090주 식수



화성시환경재단이 지난 4일 APS그룹과 함께 화성시 에코센터 숲 조성을 위해 나무 1,090주를 식수했다. 이번 행사는 APS그룹의 'APS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성공으로 마련된 뜻깊은 나무심기 행사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환경 보호와 생태계 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 에코센터 잔디마당에 수수꽃다리, 조팝나무, 영산홍 등을 심었다. 행사에는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정기호 APS그룹 회장, 김영주 AP시스템 부회장, 고원준 화성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심연보 화성시 자

원순환과장, 김효진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화성시지역주민협의체 위원, 화성시 에코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재단은 이번 행사가 단순히 녹색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로 APS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APS그룹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식목행사를 통해 화성시 에코센터에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단을 조성하고 숲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 APS그룹에 감사드린다"며 "화성시환경재단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인천시, 캠프마켓 아카이브 1단계 사업 완료

4월부터 2단계 사업착수 ... 1950년부터 1973년까지 기록물 수집

인천시가 캠프마켓 아카이브 2단계 사업을 착수했다. 시는 캠프마켓의 미래 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1월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캠프마켓 지역 관련 기록물 발굴·보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캠프마켓 부지를 중심으로 한 일제 강점기부터 미군 주둔기까지 다양한 기억이 남아있는 자료를 수집해 역사 현장을 재구성하고, 지역적 정체성과 장소의 상징성 등을 형성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기술채록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4월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1차년도 자료 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1900년대부터 1949년까지로, 그간 수집한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시티(미육군군수지원사령부) 관련 기록물을 바탕으로 국내 미수집자료와 추가 신규 자료발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사진·도면·항공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총 829점, 일본 방위연구소와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문서와 지도 자료를 총 48점을 수집했다. 이와 함께 캠프마켓 관련 인물 5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도 완료했다. 1차년도 해외수집 자료 중 항공사진과 애스컴시티의 배치도는 주목할 만한 자료다.

미 공군이 촬영한(1945년 10월 27일) 항공사진을 통해 해방 직후 인천 부평 조병창과 주변 일대의 도시 현황, 애스컴시티 시설공병대에서 작성된(1947년 6월 26일) 애스컴시티 배치도는 1948년 말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미군 재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 사진과 시설 배치도면 자료를 비롯한 1947년 미군 공병대 건설 현장 사진 자료집인 'ENGINEER PHOTOS' 앨범은 한국 노동자들의 모습과 부평 일대의 도시공간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애스컴시티와

서울 영등포, 소사-서울간 도로 공사의 모습도 포함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부평 애스컴시티 해체 및 캠프마켓 재 조성기인 1973년 기점까지의 기록물 수집과 기술채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이번 1차년도 사업은 그간 캠프마켓 부지를 둘러싼 도시공간의 역사적·장소적 의미와 가치 정립에 새로운 기초자료를 발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수집되는 자료들은 시민들과 지역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하고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실천적 방안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캠프마켓 누리집에도 전자책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가 캠프마켓 아카이브 2단계 사업을 착수했다. 시는 캠프마켓의 미래 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1월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캠프마켓 지역 관련 기록물 발굴·보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캠프마켓 부지를 중심으로 한 일제 강점기부터 미군 주둔기까지 다양한 기억이 남아있는 자료를 수집해 역사 현장을 재구성하고, 지역적 정체성과 장소의 상징성 등을 형성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기술채록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4월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1차년도 자료 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1900년대부터 1949년까지로, 그간 수집한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시티(미육군군수지원사령부) 관련 기록물을 바탕으로 국내 미수집자료와 추가 신규 자료발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사진·도면·항공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총 829점, 일본 방위연구소와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문서와 지도

자료를 총 48점을 수집했다. 이와 함께 캠프마켓 관련 인물 5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도 완료했다.

1차년도 해외수집 자료 중 항공사진과 애스컴시티의 배치도는 주목할 만한 자료다.

미 공군이 촬영한(1945년 10월 27일) 항공사진을 통해 해방 직후 인천 부평 조병창과 주변 일대의 도시 현황, 애스컴시티 시설공병대에서 작성된(1947년 6월 26일) 애스컴시티 배치도는 1948년 말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미군 재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 사진과 시설 배치도면 자료를 비롯한 1947년 미군 공병대 건설 현장 사진 자료집인 'ENGINEER PHOTOS' 앨범은 한국 노동자들의 모습과 부평 일대의 도시공간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애스컴시티와 서울 영등포, 소사-서울간 도로 공사의 모습도 포함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부평 애스컴시티 해체 및 캠프마켓 재 조성기인 1973년 기점까지의 기록물 수집과 기술채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이번 1차년도 사업은 그간 캠프마켓 부지를 둘러싼 도시공간의 역사적·장소적 의미와 가치 정립에 새로운 기초자료를 발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수집되는 자료들은 시민들과 지역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하고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실천적 방안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에도 발간한 보고서는 캠프마켓 누리집에도 전자책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남/기자



### 성남시 '가족 북크닉' 등 도서관 주간 행사 다채

16곳 도서관별 '가족' 주제로 한 독서 행사 마련

성남시는 4월 도서관 주간(4.12~18)을 맞아 '성남 봄별에서(愛書) 가족 북크닉(책과 함께하는 가족 피크닉)'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가족 북크닉은 사전 신청을 마친 200가족(713명) 참여한 가운데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성남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열린다. 참여 가족들이 신청한 책을 나눠주고서 시청 곳곳에 독자리를 깔고 앉아 자유롭게 책을 읽는 시간을 마련한다. 사서 추천 도서 500권도 행사장에 비치해 당일 빌려준다. 도서 베풀시장과 교환전도 열린다. 사전 신청(4월 8일부터 선착순)하는 50가족이 다 읽은 책들을 가져와 저렴한 가격에 팔거나 서로 바꿔 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너른못 광장엔 특별무대가 마련돼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버블·마술쇼, 저출생 관련 상식 빙고 게임, 룰렛 돌리기 등의 이벤트가 열린다. 이외도 16곳 도서관별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저출생 위기 극복에 관한 시민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가족'을 주제로 한 독서 행사 마련에 주력했다. 분당도서관은 같은 날(20일) 오전

11시~오후 4시 울릉공원 안 책테마파크 도서관 야외공연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책 콘서트'를 연다. 김상근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노래·마술 공연, 페이스페인팅, 미니 연 만들기, 포일아트 체험행사로 꾸며진다. 이 콘서트는 오는 4월 9일부터 선착순 300가족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은 '사랑과 가족'을 주제로 한 도서전시회(4.1~30)', 판교도서관은 '가족과 함께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강좌(4.13)', 복정도서관은 그림책 '목련만두' 백유연 작가와의 만남(4.23) 등의 행사를 각각 연다. 시는 '가족 더하기 공감 글귀' 공모(3.22~4.21)도 진행해 선정한 10명에 3만~1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

권을 오는 30일 지급한다. 각 독서 행사 참여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병삼/기자

### 안양시, 다음달 10일까지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아이디어' 공모

최대호 시장 "공공에 필요한 아이디어 적극 제안해주길"

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공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과 정책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안양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또는 공공 이익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한이 없다. 지원자격은 안양시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대표자 포함 3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우용/기자

접수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안양시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아이디어의 효과성, 분석 적합성, 창의성, 기획 완성도 등을 서류평가 및 제안자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명(팀)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명(팀)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2명(팀)에 각 100만원, 장려상 2명(팀)에 각 50만원, 참여상 5명(팀)에 각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신우용/기자



# 전남도, 재난관리기금 20억 긴급 투입해 도로 파임 정비

## 5월 말까지 11개 위험 구간 10km...항구적 복구 추진

전라남도는 최근 급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정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0억을 긴급 투입, 11개 위험 구간 10km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1천435건으로, 지난해(492건)보다 약 3배 넘게 급증했다.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이 많았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포트홀 위로 지나가면 바퀴나 휠이 파손되거나 순간적으로 핸들이 틀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전남도가 지방도와 위임국도 2천954km를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60개 구간 45km에 9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10개 구간 7.9km에 20억 원을 들여 지난 3월 신속하게 보수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보수가 끝난 이후에도 도로

파임과 균열이 심각해 사고 위험이 높은 남은 구간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 긴급 보수를 추진

키로 했다.

사업 대상지 11개 구간 10km는 다가올 우기 이전 5월 말까지 보수할 계획이다. 임시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노면 절삭 후 고강도 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수가 필요한 27.1km의 남은 구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속해서 정비할 예정이다.

이경중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재난기금을 통한 포트홀 정비로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은 취약 구간 일부가 해소될 기대한다"며 "상시 도로 순찰을 통해 안전을 유해하는 요소 발견 즉시 응급조치하고,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강진군, 초대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개장식 열어

## 첫날 오전부터 전국 각지 관광객 북새

강진군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의 화려한 개장식이 지난 6일, 남미륵사 행사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 남미륵사 범흥 주지 스님, 김보미 강진군의회위원장, 이병삼 강진교육장, 김금수 군동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커팅식 이후에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풍선날리기 행사로 축제장 일대는 200여 개의 풍선이 하늘을 수놓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탐방로를 둘러보며,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한 서부해당화의 핑크빛 숲길을 걸었다.

축제 첫날임에도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며, 임시주차장까지 일찌감치 만차가 됐지만, 추가로 도로변 가장자리로 질서정연하게 주차 안내가 이뤄지며 우려했던 주차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축제장으로 들어선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꽃샘매경에 빠져, 가족, 친구 등 일행들과 함께 인생샷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봄꽃 힐링 카페테리아'에서 핑크빛 정원을 풍경 삼아 차 한잔의 여유를 갖기도 했다.

축제가 열리는 남미륵사는 서부해당화와 함께 한달 후엔 만개할 1만 그루의 철쭉의 장관은 물론, 동양 최대 규모의 황동 아미타불 불상, 500 나한상 등 사찰의 아름다움으로 해마다 2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이미 관광객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증명해 왔다.

남미륵사 입구에 마련된 꽃동네 주막촌에는 군동면 출신의 '탐진사인 부녀회'에서 소박한 향토 음식으로 관광객을 맞이했고, 군동면의용소방대는 탐방로 구간 안내를 맡았으며, 봉산마을, 풍동마을 어르신들은 하루에 20명씩 환경정비와 함께 마을 혼잡구간을 정리하는 등 지역민이 뚝뚝 뭉쳐 성공 축제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진군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군의 공식적인 축제에 담고, 지역민의 참여 기회를 만들어 '축제-관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패키지'를 완성하기 위해 올해 10여 개의 크고작은 축제와 행사를 개최한다.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은 "해마다 봄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남미륵사에 오지만, 지역민으로서 축제에 직접 참여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축제부터 군동면민은 물론, 강진군민이 주인이심을 갖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축제에 참여해, 주민들끼리 더 돈독해짐을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원 군수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축제로 만들고, 축제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면, 바로 그것이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한 강진의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라며 "서부해당화의 아름다움을 많이들 오셔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는 6일부터 14일까지 '핑크빛 봄의 미소'를 주제로, 9일간 관광객을 맞이한다.

추윤호/기자



#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첫걸음 내딛다

##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 개최

전남 함평군은 지난 3일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가 함평천지중합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설립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힘찬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사 선서, 협회 소개 및 경과보고, 깃발 수여식, 내빈 축사, 협회 임원 소개 순서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협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조사 연구사업과 교육훈련사업, 출판홍보사업, 권익옹호사업 등 다양한 활동

을 펼칠 예정이다.

심문식 초대회장은 "우리는 윤리실천과 정진하는 자세로 복지함평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사협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축사를 통해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을 축하드리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대될 바라며, 사회복지사의 복리증진과 '함께 만드는 복지 함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나주시, 수도권 투자유치 행사 이어 '글로벌혁신특구' 포럼 개최

## '중압직류 배전(MVDC)' 주제로 강연, 토론... 에너지 기업 유치 도모



나주시가 지난 3일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행사에 이어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 글로벌혁신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기업,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나주시는 4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에너지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한 중압직류 배전(MVDC) 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국제 표준

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특구로 선정됐으며 차세대 전력시스템 중 하나인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류산업의 실증, 인증 등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을 마련해 국내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총사업비 1002억원(국비250·지방비415·민간337)이 투입된다.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핵심지구와 연

계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에너지 산·학·연이 집적화된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직류기반 전력망 실증을 위한 상용시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기조강연, 전문가 4인의 주제 발표와 문체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김동욱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하는 6인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중압직류 배전(MVDC)은 기존 발전소에서 전력변환을 거쳐 수송가까지 AC(교류)로 송배전하던 것을 중간 전력변환소를 거치지 않고 DC(직류)로 변환해 송배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기존 교류(AC) 전력 계통망 포화, 계통접속 지연, 출력제한 등의 문제점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도심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추세를 해소해 줄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포럼 기조 강연은 김병국 나주시 에너지육성팀장의 '글로벌 혁신특구 취지 및 혜택', 이규섭 서울대 교수의 'MVDC기술의 중요성과 국내 현

황', 정홍주(주)효성 HVDC팀장의 'MVDC 컨버터스테이션 개발현황', 유도경(주)그린이엔에스 대표의 'MVDC 산업과 전남 에너지기업의 준비', 강감식 한전 신기술연구소장의 'MVDC 사업화 추진현황'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차세대 전력망 기술 MVDC'를 주제로 기술적인 중요성과 국내 적용 효과, 컨버터 스테이션 기술 개발 등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또 직류부하 증가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MVDC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대 등 에너지 산·학·연·공 연계 발전방안도 논의됐으며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MVDC 관련 질의응답도 활발히 오고갔다.

포럼에 참석한 나상인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미래 전력 기술 분야의 기술·제품 개발 촉진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구를 통해 나주가 세계적인 에너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완도군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 슬로걷기 축제 팡파르

## 청산완도, 범바위(氣) 치유, 별별 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지난 6일 개막했다.

축제 개막에 맞춰 청산도는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어 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개막식은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청산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느림의 중' 타종식, 클래식 공연,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 가자' 등이 진행됐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치유와 힐링, 느리게 걷기를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완보'는 슬로길 11코스를 모두 걷고 스탬프를 찍으면 주말에는 선착순으로 20명에게 전복을 제공하며, 4코스 이상을 걸어도 청산도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완도 전복은 원기회복에 도움이 돼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데 4월 13일과 20일에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완도 소안수협 청산지점 일원에서 '전복 시식회'가 열린다.

강한 자성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 불리는 청산도 보석산 범바위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하는 '기(氣) 치유', 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청산도를 돌며 야경을 감상하는 '별별 버스', 은하수 사진 촬영 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이 빛나는 청산도' 등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친환경 봉투에 슬로길의 스

레기를 담으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출렁 쉼터', 팡이(슬로걷기 축제 캐릭터)를 만나 게임에서 이기면 경품을 제공하는 '팡이를 이겨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완도군청 관광과 또는 축제 현장에 위치한 주민관광청(청산로46 복지회관 앞)으로 하면 된다.

군에서는 4월 한 달간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평일)해주고,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가 세계가 인정하는 슬로시티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청산도와 슬로시티의 의미를 강조하고, 덧붙여 "이번 축제의 주제처럼 여유롭게 슬로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 속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 진도군,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함께 피부과 무료 진료 실시

## 무좀, 습진, 만성피부염,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 상담 함께 진행

진도군이 최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 진료를 실시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군은 한센병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한 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센병은 조기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를 남길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전염의 우려가 없고 완치될 때까지 무료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무료 진료에는 무좀, 습진, 만성피부염, 가려움증 등 관내 주

민의 피부질환 상담과 눈높이에 맞춘 검진을 함께 진행해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한센병과 피부질환은 조기 발견으로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부과 무료 진료 실시로 지역 주민의 의료격차 해소에 힘쓰고 건



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전북도, "100세 시대 건강이 제일입니다."

## 국민 건강의식 성장으로 보건·건강증진 사업 중요도 확대

중 대표적인 사업들이 금연클리닉, 비만예방, 구강보건, 정기 암진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10년간 도민 건강지표를 비교한 결과 전북자치도가 꾸준히 실천해온 이같은 노력이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율의 경우, 2010년에 23.1%(표준화율)였다면 지난해에는 20.6%로 떨어졌고, 반면 걷기 실천율은 2010년 42.8%에서 2023년 47.5%로 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지역 고령층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보통신(AI·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등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 고혈압, 당뇨병 등록 대상자 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임상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고려한 단계별 건강지원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인프라 확충,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보건소 대응역량강화 등도 촘촘히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이 커지고 있어 도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능강화 등 24시간 도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00세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와 시군의 보건·건강증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정책에 대한 개발 추진으로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도민 건강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해당되는 시군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국민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건강증진 노력에 힘쓰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보건의 날(7일)을 맞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기대수명 증가로 질병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에 부응한 보건 인프라 확충과 건강증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일상속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형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 광주광역시남구, 세월호 10주기 '리멤버 20140416'

## 구청에 추모공간 마련 16일까지 운영



"세월호에 대한 기억의 조각이 10년째 쌓이는데 이것은 국민들께서 세월호와 같은 제2의 참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묻는 메시지로 생각됩니다."

광주 남구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 304인을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에 대해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8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지역사회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밤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가 연달아 펼쳐진다.

먼저 남구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1층에 분향소를 포함해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추모 공간은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담기 위해 희생자 304인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과 그 동안 관내 지역사회에서 진행돼 온 추모행사 사진 등이 전시된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아픔을 온전히 기억하고, 국가적 재난 사고의 기록 보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되돌아보기 위해서다.

분향소는 꽃다운 청춘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구청 공직자들도 일제히 '리멤버 20140416' 추모에 나선다.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1층 로비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가슴에 품으며 헌화에 나선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추모사 및 추모시 낭독을 통해 그리움의 크기만큼 생명 존중의 세상을 열어야 할 것임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주월동 빅스포 뒤 푸른길 광장에서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를 개최한다.

관내 청소년과 주민 등 200명 가량이 참석하며, 추모 공연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국가적 안전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이며, 온 국민이 끝까지 함께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며 "4월의 봄에 다시 희생자의 이름을 되뇌며 그날의 슬픔과 기억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만국가정원, 개장 첫주부터 관람객 인기몰이

## 확 바뀐 정원, 새로 도입한 스펙타클 어트랙션과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사로잡아



4월 1일 문을 연 순천만국가정원에 주말을 맞아 관람객이 대거 몰렸다.

순천시에 따르면 개장 첫주부터 21만 명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2023 정원박람회의 대박 신화가 재현되고 있다는 평이다. 주말 6~7일 개장 2일간 입장객 수는 12만 명을 기록하고 개장

첫 주 관람객이 21만을 돌파했다.

이는 정원도시를 넘어 정원문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가 국가정원에 AI와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관람객을 사로 잡겠다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사로잡은 것은

우주선이 막 착륙한 듯한 '스페이스 브릿지'다. 175m의 다리 내부에는 관람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디어 어연홀로 곳곳이 포토스팟이 됐다.

스페이스 브릿지를 건너면 시원한 개방감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5천평의 화훼 공간 '스페이스 허브'가 펼쳐진다. 개막식 당일 1만여 명 시민이 참여한 애니메이션 퍼레이드가 열렸던 이 곳은 전용 전망대까지 설치되어 국가정원의 새로운 메인 포인트로 급부상했다.

시범 운영 중인 국가정원 야간 프리미엄 투어 '나이트 가든 투어'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 관람객을 사로잡은 귀여운 스탬프 투어 '작은 정원사의 모험', 출구는 세포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듯한 '유미의 세포를 더우비', 4D 입체 영상관과 인터랙티브 전시, 프로젝션

맵핑이 있는 시크릿 어드벤처도 연일 관람객을 끌어들여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관람객들은 "밤낮으로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에 감동", "다양한 콘텐츠가 새로 생겨 더욱 재미있어졌다", "화려한 꽃 사진 찍으러 또 방문 예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에 야심차게 도입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더불어 화려한 사계절 화훼, 문화행사도 더욱 다이내믹하고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며, "이제는 순천으로 오셔서 '정원문화도시'를 느끼고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번 4월 1일 개막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되며, 태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준/기자

# 남원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업제안 가능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개편

## 주민 일상생활을 위한 20억원, 의견수렴 창구 다각화

남원시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대폭 개편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로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다보니 주민 참여가 어렵고,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소규모 시설사업 위주로 제안되는 한계가 있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이 쉽게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행한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

전문 교육기관에서 4.9부터 5.28일까지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 시민이 알기 쉽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작성하고 발굴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발굴된 제안사업은 새롭게 구성된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시민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게 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의견수렴 창구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시민제안에 이어 청년공동체 조직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의 주인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인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예향의 도시 목포에서 배우의 꿈을 펼치세요!"

##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전남도민 대상으로 100명 모집

목포시와 전남영상위원회가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배우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배우'사업은 지역의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배우로 선발된 대상자들에게는 전문 프로필 촬영 및 전라남도에서 촬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조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조출연자 역량 강화 등 3회차에 걸친 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전남 동부

권(순천)과 서부권(목포)으로 나눠 각 50명씩 교육한다.

목포 교육장소는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전남배우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향후 보조출연자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개인 프로필 촬영'교육 과정에서는 전문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와 사진작가가 함께해,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배우는 전남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기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전남영상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면 되고, 교육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영상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영상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예향의 도시 목포에서 멋진 배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보성군, 보성읍 복지기동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구슬땀

## 취약 가구 환경정비, 간이화장실 설치 작업 실시



보성군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보성읍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보성읍 복지기동대와 희망드림협의회, 자원봉사자, 보성군 119생활안전순찰대, 마을 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총동원됐다.

봉사자들은 힘을 합쳐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도배, 장판 교체, 간이화장실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주택 내부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보성읍 복지기동대 임영서 대장은 "오늘 참여해 주신 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성 보성읍장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봉사해주신 기동대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보성읍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읍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일상속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등 교체, 도배·장판 교체, 청소활동을 수행하는 등 매년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최원영/기자



# 이철우 도지사, 저출생과 전쟁 성금 기부로 솔선수범

## '온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 운동'에 개인성금 1천만원 기부 대한민국 위기 극복 위해 국민 모두 참여하는 운동으로 승화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일, 저출생과 전쟁을 위한 자금 모금에 개인 자격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 국민 공감대 조성과 동참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기부 운동"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만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만원 이상 기부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모금 운동은 개인, 각급 단체, 기업인, 해외교포 등이 동참해 짧은 시간 11억원이 넘는 성금이 접수됐다.

온 국민 동참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되며 특히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



# 2만 8천여 명 역대 최대 참가 대구마라톤대회 성료!

## 7일 오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61개국 2만 8천여 명 역대 최대 참가

4월 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과 마라톤 동호인 등 2만 8천여 명이 참가한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권위의 마라톤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대회 우승상금을 인상해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초청했고, 코스도 대구 전역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대회였다.

국제 엘리트 부문 남자 우승은 케냐의 스테픈 키프롭 선수가 2시간 7분 4초로 완주해 1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획득했다.

국제 여자부 우승은 에티오피아의 루티 아가 소라 선수가 2시간 21분 7초로 차지했으며, 2위 앙젤라 제메순데 타누이 선수가 2시간 21분 32초를 기록해 대구마라톤대회 기록인 2시간 21분 56초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남자부는 대구시청 소속의 이동진 선수가 2시간 18분 4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는 K-watet 소속의 정다은 선수가 2시간 34분 31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마스터즈 부문은 폴코스가 7년 만에

부활해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대구 이외 지역에서 온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46%를 차지하는 등 대구마라톤에 대한 인지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타지에서 온 참가자들은 대구 시내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코스로 변경돼 수성못 등 대구 곳곳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다. 또, 출발지로 변경된 대구스타디움은 KBS 생방송을 통해 육상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다.

대구광역시와 참가 규모와 대회 코스가 변경된 첫해인 만큼 올해 대회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대회의 개최 시기, 운영방안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2024년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4.8.~4.24. 부산상의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늘(8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4년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사회가치경영(ESG)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이 필수 요소로 전환되는 세계적(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부산 지역기업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원청기업-협력기업 상생협력 사업(원청 5개사, 협력 15개사)'과 ▲'중소기업 ESG 확산지원 사업'(10개사)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원청기업-협력기업 상생협력 사업'은 원청기업이 3개 이상 협력기업과 동반 참여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청기업에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등 사회가치경영(ESG) 맞춤형 컨설팅을, 협력기업에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회가치경영(ESG) 심층 진단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협력사가 영세한 지역의 중소기업들로 이뤄져 사회가치경영

(ESG) 도입과 관련한 재정적 투자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이번 상생 협력사업은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와 원청기업과의 동반성장, 그리고 사회가치경영(ESG)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ESG 확산지원 사업'은 사회가치경영(ESG)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사회가치경영(ESG) 도입에 필요한 초기 진단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심층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가치경영(ESG) 평가지표 구성, 진단평가, 현장실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참여기업에는 컨설팅뿐 아니라, 사회가치경영(ESG) 포럼과 설명회 등 다양한 사회가치경영(ESG)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참여기업 간 교류망(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부산상공회의소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늘(8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상공회의소(회원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기업들이 기업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가치경영(ESG) 체계를 구축하고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는 이번 사업을 함께 위기를 극복한 지역 상생 모범사례로 전파하는 등 부산지역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참여와 확산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상주시 저출생 극복 TF 구성 발대식 및 정책 발굴 보고회 개최

## 강영석 상주시장, "청년-젊은-출산-완전돌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전방위적 대응 전략으로 인구감소 대응은 물론, 살기 좋은 '매력 도시 상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사업 선도에 나하겠다."

상주시는 지난 5일(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초저출생 위기 시대에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저출생 극복' 정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간 상주시는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 이후, 지난달 6일 정상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저출생 정책 총괄, 실행추진, 임신·출산, 보육·교육, 일·생활 균형 개선 5개 분야 12개팀의 대책반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 TF를 발족했다.

이날 보고회는 저출생 극복 TF 단장인 정상원 부시장을 주제로 담당 부서장 및 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실행계획' 분야별 과제(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대 분야 72개)를 검토하고, 연계 가능한 과제에 대해 대응책을 공유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

졌다. 발굴한 주요 시책으로는 청년 유입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상주시 이차전지 U시티 프로젝트,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24시 연장 운영,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임신 전·후 휴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등 총 37건의 다양한 분야의 시책들을 발굴했으며, 발굴된 사업은 추가 검토 및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 청송군, 「2024~2028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윤경희 청송군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청송군의 농업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들이 발굴·시행돼,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청송이 되길 기대한다." 밝혀



청송군은 지난 4일(목),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농업정책심의 위원 및 농업·농촌관련 실무자, 팀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8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청송의 변화된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중·장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송군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

소득증대, 미래지향적 가치농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청송군의 여건과 특성,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의 계획을 검토, 반영하여 청송군의 농업비전과 "앞서가는 미래 농업 대전환, 안정적으로 향상하는 농가경영, 살고 싶은 농촌마을"이라는 3대 목표 설정 및 추진을 위한 210여개의 세부사업 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2024년 전 직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 건전한 가치관 함양,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영양군은 지난 8일(월), 군청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4년 전 직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소정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대응 절차 및 예방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양성평등한 직장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2차 피해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강조하며, 고착화된 성관념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성과 조직 내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영양군

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양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별도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경주시 두류공단 악취발생 우려지역 정밀조사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한 '24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일반공업지역(이하 두류공단)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두류공단에는 폐기물처리·재활용, 비금속 및 비료제조 등 50여 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40 여개의 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경북도가 2022년 5월에 두류공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 실태조사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악취 발생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악취 저감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한다.

이번 조사는 두류공단 내 악취를 대표하는 지점(관리지역)과 주민 영향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점을 선정해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 4회/년 실시하며,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등 13개 항목과 기상자료(풍향, 풍속, 기온 등)이다.

앞서 2023년 12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관리지역 내 복합악취가 상반기 5건, 하반기 2건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화성 환경연구부장은 "경주시와 긴밀한 협조로 악취배출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산불피해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심다' 울진군, 제79회 식목일 행사 개최

산불피해지 내 숲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도  
손병복 울진군수, "산불은 예방이 가장 최선인만큼 지난 대형 산불과 같은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 활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해

울진군은 지난 4일, 북면 부구리 일대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진군, 울진군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180 여명이 참여하여 2ha의 면적에 산벚나무 580본을 식재하고 비료를 시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2022년 대형 산불피해지에 식목 행사를 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이 산불피해의 심각성과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산불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불은 예방이 가장 최선인만큼 지난 대형 산불과 같은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 활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 의성군, 2024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 개최

김주수 의성군수, "2024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에 군의 다양한 행사·축제·관광·문화 요소들을 담은 많은 영상들이 접수돼, 색다른 매력을 확인하는 기회되길"

의성군은 새로운 시각에서 의성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2024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중이라고 밝혔다.

공모전의 주제는 '의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유주제'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재생시간 2분~5분의 일반영상과 15초~60초의 짧은 영상인 숏폼 영상 분야로 구분 접수하며 연령과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손쉽게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 계정 유튜브에 '전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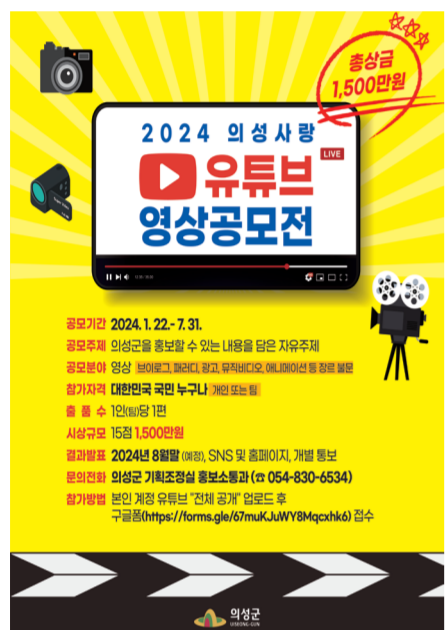
로 공모전 접수 영상을 업로드한 후 구글폼(<https://forms.gle/67muKJuWY8Mqcxhk6>)을 통해 7월 31일(수)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에 대하여는 1차 내부심사 후 2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가 이루어지며, 주제적합성, 창의성, 작품성, 홍보활용도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수상작은 8월 중 의성군 공식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일반영상 최우수 1점(300만원), 우

수 2점(각 200만원), 장려 5점(각 80만원), 숏폼영상 최우수 1점(150만원), 우수 1점(100만원), 장려 5점(각 30만원)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4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라며 "의성군의 다양한 행사, 축제, 관광, 문화 요소들을 담은 많은 영상들이 접수되어 의성의 색다른 매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8천200여 건각 '영주의 봄' 달렸다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먹거리 코너 인기  
남자부 이병도(우승) "영주는 좋은 추억·경험 주는 곳, 내년 더 좋은 기록 도전"  
여자부 박소라(우승) "마라톤은 심신 고루 발달, 적극 추천"

전국 10대 메이저 대회인 '2024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가 지난 7일 성황리에 열렸다.

영주시와 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 396명, 하프코스 905명, 10km코스 1,865명, 5km코스 4,954명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8천200여 명의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 선수들은 봄기운이 완연한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수서원, 선비촌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 주변을 달리며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마라톤 주로는는 시민들이 나와 박수와 환호로 선수들을 받았다.

이번 대회 풀코스에서 남자부는 이병도(MRC+더뉴런)씨가 2시간 42분 56초로 우승, 김희복(마라톤TV-2시간 50분 50초)씨가 2위, 장홍익(개인·3시간 54분 04초)씨가 3위를 차지했으며, 여자부는 박소라(개인·3시간 23분 44초)씨가 우승, 2위는 이정숙(개인·3시간 33분 48초)씨, 3위는 박성희(개인·3시간 43분 30초)씨가 각각 차지했다.

하프코스는 김용범(개인·1시간 15분 51초)씨가 남자부 우승, 김주연(H2O 마라톤클럽·1시간 28분 21초)씨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시 일원은 화창하면서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만개한 벚꽃과 다양한 봄꽃의 향기를 따라 1만여 명의 참여자들은 뜨거운 열정의 축제를 연출했다.

시는 풀코스·하프코스 완주자를 대상으로 메달 각인 서비스 및 현장에서 화면을 송출해 자신의 마라톤 완주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며 응원객들도 더욱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대회는 푸짐한 먹거리로 참가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시는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전면에 특산물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영주한우불고기, 한돈 불고기, 사과, 고구마빵 등을 전국의 마라톤러들과 제공했다.

시는 이날 다수가 물리는 위험에 대비해 행사장 내 운영본부 및 의무실 등을 설치 운영해 행사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행사장 구역별 안전요원 배치, 마라톤 코스 차량 통제, 주차장 교통관리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오늘 전국의 마라톤러들이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소백산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따라 마음껏 달렸다"며 "내년에도 건강과 함께 영주의 문화적 특성과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대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4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구직·취업·창업 지원, 취업·창업 교육, 지역·직업·취업·창업 지원, 창업·취업·창업 지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총액)	지원 기간 (총액)
일반 지원	150만 원	150만 원	25주
우수 지원	200만 원	200만 원	30주
최우수 지원	250만 원	250만 원	35주

신청기간: 2024.04.10(월)부터 선착순 모집  
신청처: <http://www.yehubcenter.com>

# 안동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90명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공

안동시는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는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2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약 4억 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사업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이며, 우리 시 거주자는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기(최소 5주 이상, 20명) ▲중기(최소 15주 이상, 40명) ▲장기(5개월 이상, 30명)의 세 가지 과정으로 총 9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밀착 상담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취미 개발, 동아리 활동, 지역기업 연계 취·창업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 정도에 따라 각각 △단기 50만 원 △중기

150만 원 △장기 2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중기 최대 70만 원 △장기 최대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나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며,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054-843-8532)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열어

봉화군은 지난 5일 제79주년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봉화읍 해저리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기본법에 근거해 봉화군이 주관하고 공무원, 봉화군산림조합 임직원, 임업후계자, 숲사랑지원단 등 산림관련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1.0ha의 산림에 회화나무와 산벚나무 총 1천 그루를 식재했다.

한편 군은 올해 조림사업으로 94ha

의 면적에 자작나무 외 6종 24만 5050그루를 식재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임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 양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인 회화나무와 산벚나무를 식재했으며, 앞으로도 임업 소득을 낼 수 있는 산림 수종을 발굴 식재해 지역주민의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경주벚꽃마라톤대회' '축제장' 방불...벚꽃비 맞으며 보문관광단지 달려

세계마라톤동호인 1만 2000여명 참가, 역사·관광·스포츠도시 경주 완주

경주시는 지난 6일, 경주시 주최, 경주시체육회 주관 경주보문관광단지에서 열린 '제3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31개국 및 국내 동호인 등 1만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성료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풀코스를 뺀 ▲하프코스 ▲10km ▲5km 3종목만 열렸다.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됐지만, 예상보다 늦게 만개하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덕분에 출전 선수와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 대회 참가자 모두 벚꽃비를 맞으며 천년고도 경주의 봄향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날 출발 장소인 보문관광단지 일원에는 지역 봉사단체들이 준비한 국수 등 먹거리를 먹으며 출전을 기다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기원을 하는 대회로서 경주가 꼭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참가자가 하나가 되어 가장 한국적인 세계문화도시,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적지

경자씨, 자원봉사단, 풍물단 등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단체 및 동호인 부스 관리, 물품 보관, 먹거리 및 급수 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응급구조사 10명과 구급차 10대를 2.5km마다 배치하고 대회본부에는 전문의 1명, 간호사 3명을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기원을 하는 대회로서 경주가 꼭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참가자가 하나가 되어 가장 한국적인 세계문화도시,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적지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참가자 모두가 힘을 보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마라톤을 사랑 하는 해외 및 전국의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대회를 최고의 멋진 대회로 치렀다"며 "천년고도 경주의 봄을 알리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마라톤러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든 참가자 여러분의 열의를 담아 2025 APEC 정상회의가 꼭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 해외방문 후 고열, 두통 등 증상 있으면 보건소에서 치료해야

경상북도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국내 토착화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거점 Dengue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거점 Dengue 예방관리 사업'은 기존 국립검역소에서 시행하는 검역단계 입국자 대상 Dengue 조기 발견 사업을 확대, 시행한 것으로 Dengue로 인한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내 Dengue 총 유입 환자 수가 206명으로 2022년(103명)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늘어난 해외여행으로 인한 Dengue의 국내 유입 위험과 날씨에 따른 Dengue 매개 모기의 토착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4개 시군(포항시 남구·북구,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보건소)에 '지역거점 Dengue 예방관리 사업 보건소'를 지정하고, ▲Dengue 예방 홍보 ▲Dengue 의심자 진료·진단검사 ▲Dengue 환자 치료 연계 ▲주변 모기 방제 시행 등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Dengue는 Dengue 바이러스(dengue virus)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 잠복기를 지난 후,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발진, 안와통증,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치사율이 약 5%지만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재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악화하여 치명률이 높다. 아직 효과적인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Dengue 감염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전 예방수칙 등을 확인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방문 후 고열, 발진 등 Dengue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역거점 보건소에 즉시 방문해 조기진단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Dengue 예방관리사업 거점 보건소 5개소 지정 운영 해외방문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모기피해제 사용, 밝은색 긴옷 착용 등) 준수

# 청송군, "자연산 민물고기는 꼭 익혀서 드세요~"

장내기생충조사사업 간흡충 무료검사 실시  
윤경희 청송군수, "앞으로 간흡충 예방 퇴치 위한 교육과 홍보 지속해 나가겠다."

청송군보건료원은 4월 8일(월)부터 26일(금)까지 3주간 장내 기생충 질환 예방을 위한 간흡충(간디스토마) 등 장내 기생충 11종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주방 기구 사용으로 감염이 되며, 적은 수가 기생할 경우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으나 수심 마리가 기생할 경우는 소화불량, 복통, 황달, 간 기능 저하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는 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등 합병증을 유발한다.

한편, 간흡충 무료검사는 가까운 보건지소나 보건료원 감염관리실로 방문등록 후 검사 가능하며,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주민은 치료제 지원 및 투약 3개월 후 재검사 등 지속적인 관

리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내 기생충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간흡충 예방 퇴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1천만원 상호 기부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함께하는 기부 품앗이로 '훈훈한 정' 나눠  
김학동 예천군수, "공무원과 축협 임직원들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감사드리며, 기부품앗이로 예천군·영주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

예천군과 영주시 축산과 및 지역축협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품앗이 기부에 나섰다.

예천군 축산과와 예천축협은 영주시 축산과와 영주축협과 함께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서로 품앗이 기부하기로 했다.

8일 예천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영주시 정희수 축산과장, 영주축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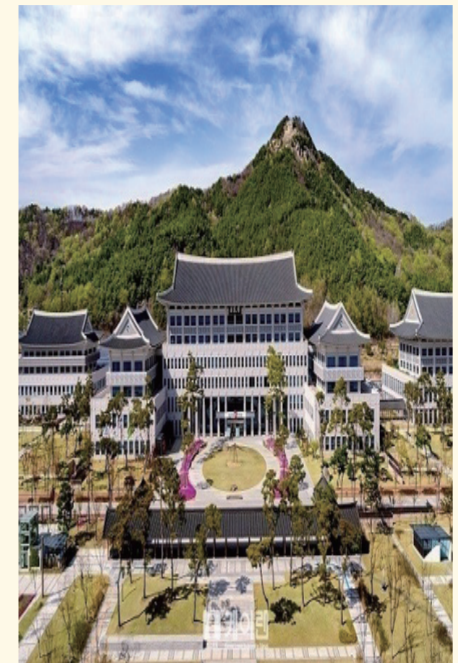
서병국 조합장, 예천군 박근노 축산과장, 예천축협 이정식 전무 등 10여 명의 축협 임직원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참석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자체와 지역 축협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던 중 상호 교차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민식 예천축협 조합장은 "두 지역 축협의 협력이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제공되며 다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상생의 뜻을 모아준 공무원과 축협 임직원들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품앗이를 통해 예천군과 영주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영양읍 새마을회, '사랑의 간식 나누기' 행사 실시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간식으로 맘을 전해

영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동환)와 새마을부녀회(회장 권낙향)는 4월 8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간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영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30여 명은 관내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36가구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간식꾸러미를 전달했다.

김동환 회장은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영양읍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온정을 느끼게 해주신 새마을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읍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평소에도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홀로 계신 독거노인 방문, 환경관련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하는 모범이 되는 단체로,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는 따뜻한 영양읍 만들기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동환)와 새마을부녀회(회장 권낙향)는 4월 8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간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영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30여 명은 관내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36가구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간식꾸러미를 전달했다.

김동환 회장은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영양읍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온정을 느끼게 해주신 새마을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읍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평소에도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홀로 계신 독거노인 방문, 환경관련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하는 모범이 되는 단체로,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는 따뜻한 영양읍 만들기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윤근수/기자



# 전국 광역 최초! 부산시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된 안전소재로 전면 교체

지역내 방음터널 4곳(영도고가교, 화명고가교, 장전지하차도, 와석지하차도) 대상으로 시행

부산시는 지역내 방음터널 4곳의 시설 소재를, 가연성 소재에서 방재성능이 개선된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다.

지역내 방음터널 4곳은 ▲영도고가교 ▲화명고가교 ▲장전지하차도 ▲와석지하차도다.

시는 방음터널 내 시설 소재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에서 화학적합강화유리 등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 완료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다. 해당 공사는 2022년 12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로 방음시설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시는 지난해 1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에 따른 ▲단기적 조치로는 소화설비 설치 ▲장기적 조치로는 방재성능 소재 교체공사를 추진했다.

방음벽의 형상과 선형에 따라 ▲영도·화명고가교는 불연소재인 강화유리로, ▲와석·장전지하차도는 난연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로 교체했다.

영도·화명고가교 일부와 장전·와석지하차도 진·출입부 4곳의 약 1.1킬로미터(km)가 가연성 소재인 PMMA(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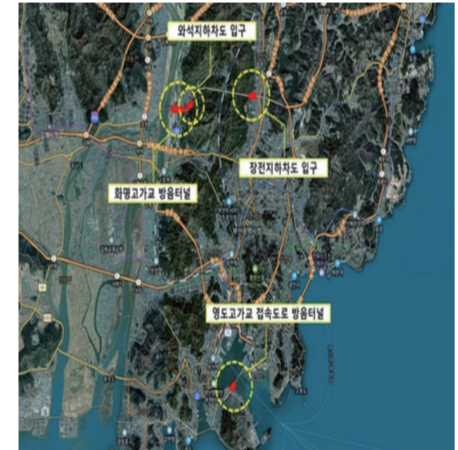
메타크릴산메틸)로 이뤄져 교체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도 설치 완료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길이가 250미터(m)를 초과하는 영도·화명고가교 및 가야고가교에 '피난계단'과 '사다리'를 설치했다.

심성태 시 건설본부장은 "이번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 및 피난시설 설치공사로 우리시 방음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터널 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합니다!

전국 최초 '대구로'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가능

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에서 4월 8일부터 배달앱 중 전국 최초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진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란 별도의 카드발급 절차 없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액을 충전한 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의 온누리상품권이며, 충전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별 할인 충전 한도는 매월 200만 원이다.

이러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4월 8일부터 배달앱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구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대구로'에 입점한 가맹점 중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부분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인 만큼, '대구로' 가맹점 중 '전통시장' 카테고리에 입점한 가맹점과 장보기 서비스(유통배송)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대구로' 앱에 별도로 표시된다.

현재 '대구로'의 '전통시장' 카테고리에는 30개 시장, 416개 상점이 입점돼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가능하며, 특히, 달서시장은 유통배송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향후 유통배송 가능 시장 확대를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로'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려면, 첫째,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온누리상품권' 앱을 설치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앱에 등록해야 하며, 법인카드 및 특수목적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둘째,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계좌와 사용하려는 카드등록을 마쳤으면, 해당 앱에서 매월 200만 원 한도 내로 10% 할인 혜택을 받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야 하며, 최소한 '대구로'에서 결제하려는 금액 이상만큼 미리 충전돼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구로'에서는 결제 수

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선택한 후 반드시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등록했던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카드번호와 CVC 번호를 입력하는 일반결제와 카드사별 앱카드결제(스마트결제) 중 개인에게 더 편리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10% 충전 할인 혜택 외에도 사용한 카드의 결제금액은 그대로 해당 카드 사용 실적에 합산돼 반영되므로, 포인트 적립, 카드 혜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전월 실적 달성 등 카드사 고유의 각종 혜택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윤근수/기자



# 포항 지역 돌봄 이웃 무료 세차 서비스 지원에 힘 모은다!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 돌봄 이웃 대상 세차 서비스 제공

포항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포스코PR테크, 포항시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차 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포스코PR테크 내 'P.R.T 세차동호회'가 무료 세차 지원을 재능봉사 활동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항시와 (주)포스

코PR테크, 포항시가족센터는 수요자 모집, 대상자 연계 및 홍보 방안 등 원활한 서비스 추진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매주 1회 대상자들에게 고급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주)포스코PR테크 대표이사는 "이번 무료 세차 서비스 지원을 통해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명환 복지국장은 "재능 봉사활동으로 돌봄이웃들에게 무료 세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봉화청량산김치,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실시

박현국 봉화군수, "매년 사랑의 김치 나눔으로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봉화를 만들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봉화청량산김치 농업회사법인(주)은 지난 8일, 봉화군 제2농공단지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 김치 5kg 600박스(1,6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봉화청량산김치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봉화군과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 매년 봉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를 기부해왔다. 이상우 봉화청량산김치 대표는 "봉화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행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매년 사랑의 김치 나눔을 통해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 영주 봉현초, 작년에 이어 2024 영주소백산마라톤 참가

4~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함께 달려

봉현초등학교는 지난 7일(일),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5km 구간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는 4~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친구, 가족, 선생님과 함께 구간을 달리면서 참가 학생들은 따뜻한 봄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4학년 이○○ 학생은 "작년에 형,

누나들이 참가하는 걸 보면서 4학년이 되면 꼭 참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뛰었는데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잘 뛰어서 서로 칭찬을 해줬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함께 참가한 박○○ 학부모는 "아이와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참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아이와 뛰면서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봉현초등학교는 올해 '바르게 걷기 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이며, 축구와 야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관람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케이트와 스키 등 계절스포츠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체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정금자/기자



# 다원코리아 전삼웅 대표, 영덕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광열 영덕군수, "이렇게 훈훈한 사랑의 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해 주셔서 고맙다."고 밝혀

(주)다원코리아 전삼웅 대표가 지난 5일, 영덕군청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전삼웅 대표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지구 VS 플라스틱 당신의 선택은? 서울시, 지구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23개 대학생·단체·기업 등 환경 관련 시민 체험 부스 운영, 거리공연도 선보여

지구와 플라스틱, 당신은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4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전 세계 192개국 10억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기념일로 올해의 세계 공통 주제는 '플래닛(Planet) vs 플라스틱(Plastics)'이다.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플라스틱없는 사는 법'을 주제로 23개 대학생, 각종 단체, 기업 등이 게임, OX 퀴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가 플라스틱 탈출 방법을 게임으로 재미있게 체험하는 9개 주제 부스를 운영한다. 미세플라스틱과 건강 관련 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우유팩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만들기(서울에너지플러스), 먹는 화분 만들기(주한볼리비아대사관) 등도 진행한다. 개인 컵을 가져오면 11시부터 무료로 음료로 주는 이벤트(서울시 자원순환과)도 있다. '지구 vs. 플라스틱'에 투표하고 제로서용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해시태그와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거리공연도 오후 12시와 3시 두 차례

진행된다. 몽환적인 사운드를 선사하는 악기인 핸드팬과 첼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밴드 '오시오'(12시) 공연과 하이매직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퍼포먼스 마술공연(3시)이 펼쳐진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지구'와 '플라스틱'이 한판 승부. '지구'와 '플라스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앞에서 유세전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한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을 대표하는 선거운단 총 8명이 지구와 플라스틱의 유세를 듣고 지지하는 곳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이벤트 '플라스틱 탈출 챌린지'도 진행한다. '플라스틱 없는 생활' 실천 인증사진을 '서울시 환경교육포털'에 게시하면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가 만든 플라스틱 탈출 챌린지 쇼츠 영상도 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튜브 채널 '제로 서울'에서 공개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가족, 친구들과 광화문광장으로 뭉나들이 오셔서 지구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자연에서 도자기가 피어나다 이천에코세라믹스.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Icheon ceramic festival 2024. 2024.04.25 Thu - 05.06 Mon. 이천도자예술큐(에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무료 입장 · 무료 주차. 주최 이천시-이천문화재단, 주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 강원도민체전·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자원봉사자 15일까지 모집

#### 개·폐회식 지원, 안내, 환경정리 등 220명 모집, 4월 15일까지 접수



양양군 자원봉사센터가 오는 5~6월 중 개최되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 민체육대회' 및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220명을 모집한다.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며, 도내 체육인 및 방문객 14,000여명이 대회 참여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모집분야는 개·폐회식 지원, 종합안내(금수지원, 환경정리, 주차안내 등) 이고, 모집인원은 220명으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접수받으며, 경기종목별로 자원봉사 근무일정이 상이하다.

단, 봉사실적인정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해야 자원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양양군청 및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양양군자원봉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4월 19일 중 최종 선발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사정에 따라 본 기간 외 사전행사 또는 사전경기에 배정될 수 있으며, 개·폐회식장, 경기장 및 경기일정별로 근무장소가 확정되고, 추후 진행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통해 근무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현장에 배치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근무복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처음 개최하는 도민체전인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충남도, 지역 대학생 대상 직업 교육훈련 추진

#### 도·대학·일자리 기관, 우수인력 양성 업무협약...시범사업 시작

충남도는 최근 도내 대학, 일자리 관련 기관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 대상 직업 교육 훈련을 진행해 도내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업무협약은 북부권은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호서대, 중부권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운대, 남부권은 논산여성인력센터와 건양대 등 권역별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을 위해 협력한다.

도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도내 대학은 직업 교육훈련 이론 과정과 교육 진행 환경 구축을, 일자리 기관은 실기 과정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지원한다.

직업 교육훈련 과정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북부권) △떡제조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중부권) △숙는



쌈 연장 및 찜 실무 과정(남부권)으로 총 3개 과정을 권역별로 추진한다.

도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부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과 숙는쌈 연장 및 찜 실무 등 2개 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

내 일자리 기관, 대학과 함께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 샤인머스켓을 이용한 오렌지 와인 특허 출원

#### 과잉 생산되는 샤인머스켓 수급 조절에 큰 역할 기대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는 과잉 생산되는 샤인머스켓을 이용하여 화이트 와인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1.9배 향상된 오렌지 와인 제조방법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오렌지 와인(Orange wine)은 레드, 화이트, 로제를 이어 '네 번째(4th) 분류의 와인'으로 공식 구분되며,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의 과즙만 추출하여 발효시키는 반면 오렌지 와인은

청포도를 으갠 후 껍질과 씨를 함께 발효시키는 레드 와인 양조 방법을 사용한다.

샤인머스켓은 화이트 와인 양조용 포도보다 산 함량이 낮아 와인으로 양조 시 산미가 약하고, 과육이 단단하며 과피와 과육이 잘 분리되지 않아 와인의 수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샤인머스켓을 파쇄 후 껍질을 과즙과 함께 20°C에

서 4주 동안 발효 후 껍질을 제거하고 숙성하는 방법으로 기존 단점을 해결했다.

샤인머스켓으로 만든 오렌지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수율이 증가했으며, 폴리페놀 함량은 1.9배 높아졌다.

적색 정도(적색도) 또한 8배 증가하며 와인이 오렌지색을 띠어 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며 전반적인 기호도 역시 향상됐다.

샤인머스켓은 국내 전체 포도 재배면적의 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공을 통한 포도의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한 샤인머스켓 오렌지 와인의 상품화로 농가 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원 와인연구소 윤동규 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오렌지 와인 제조 방법은 기존의 와인과 차별화된 맛과 특징을 지닌 와인 제조 기술로 포도 농가와 와인이너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와이너리 농가와 관련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빠르게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아산시, 신정호 수질개선을 위한 '고효율 녹조 복합제거장치' 운영

####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 시범운영 추진

아산시는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복합제거장치(수상용 2대, 육상용 1대)'를 지난 4일 신정호에 설치하고 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작년 9월 신정호수 녹조 방지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조달청이 사업비(15억 4천만 원) 전액을 부담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응모해 '고효율 녹조복합제거장치 운영 사업'에 선정됐으며, 그에 따라 조달청과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고효율 녹조복합제거장치'는 씨엠스코(주)에서 제조한 장치로 오염된 저수지 호 내의 유기물 및 녹조가 포함된 표면수를 흡입한 후 유기물과 녹조를 85% 이상 분리·제거해 호외로 배출하는 기술로 2차 환경오염 없이 수질개선을 할 수 있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과 환경부 신기술을 인증받은 장치다.

8일부터 운영하는 녹조복합제거장치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혁신제품 시범운영에 앞서 수질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주(씨엠스코(주)) 부담으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사전 운영이다.

이후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성 검증을 위해 올 2월부터 12월까지 호 내 3개 지점에서 채수한 원수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질을 분석한다.

정순희 정원조성과장은 "우리 시 명소인 신정호 아트밸리를 중부권 최고의 여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 조성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호 내 녹조,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녹조복합제거장치 운영 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상식재 및 수중 폐기물 제거, 이상 증식된 연못 군락 제거 등의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지원 사업' 추진

태백시가족센터는 4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휘력, 표현력 발달과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다문화가족자녀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독서 지도사·책 놀이 지도사·활동가 기초교육 수료자 등의 자격을 소지한 활동가가 다문화가정으로 찾아가 독서 지도, 소리내어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백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마쳤으며, 선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다문화가정 2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애 센터장은 "책 읽어주기 사업을 통해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구사 능력 및 사회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문화가족자녀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 강원랜드 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태백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상근/기자

**www.dudc.or.kr**

**금호워터폴리스**

**NATURE HUMAN CITY**

상업, 근생, 자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공급 예정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공급 중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문의 053) 350-03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교육청,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눈 건강안경 지원 사업 실시

취약계층 안경 구매비 4억 1,410만 원 지원

임종식 교육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꼼꼼히 살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취약계층 학생 4,141명에게 시력 교정용 안경구매비 4억 1,41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이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계층 학생 눈 건강 안경 지원 사업은 시력 교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경을 구매하기 힘든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저시력으로 인한 학업 수행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학생들은 시력 교정용 안경을 구매하여 소속 학교에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한도(1인당 10만 원) 내에서 실제 안경구매비를 지원 받게 된다.

2023학년도에 안경구매 지원을 받은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력의 변화 또는 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꼼꼼히 살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교육지원청,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간부공무원 학교급식 특별점검 실시

이창희 교육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급식관계자들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난 8일과 9일 양일 간 관내 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창희 교육장은 8일 경북일고를 불시에 방문하여 ▲식재료 검수 ▲조리실 위생상태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조리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노고를

치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창희 교육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급식관계자들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예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조리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점검,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계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일/기자



# 부산교육청, '부산 학습지원 PT'로 학력체인지 속도 높여

대학생 튜터 1:1 학습지원으로 책임교육학년 기초학력 책임진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학습지원 PT(Personal Training)'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학력체인지 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인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부산 학습지원 PT'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학습지원 PT(Personal Training)'는 방과후 대학생 튜터가 학교로 찾아가 학습지원이 필요한 초·중등 튜터 학생을 1:1로 지원해 개인별 수준에 맞춰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진단검사부터 취약점 분석, 수준별

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부경대, 부산고대, 부산대, 신라대, 한국해양대와 협력해 더 많은 학생이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력개발원은 지난 6일 대학생 튜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튜터 역량 강화 연수와 모니터링을 통해 '부산 학습지원 PT'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 학습지원 PT는 책임교육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체인지를 이룰 것이다"며 "앞으로도 부산 지역 대학교와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

여 아이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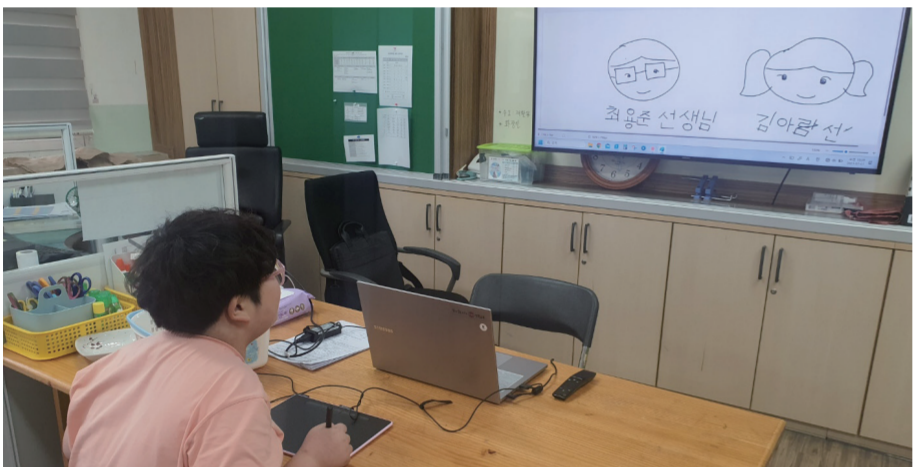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꿈 키움 자격증 지원 사업 올해 1억 2천만 원 투입!

고등학교 장애 학생 247명 선정 지원

임종식 교육감, "장애 학생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 학생들이 자존감·자신감 높여, 희망 직종에 자유롭게 도전,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의 직업 실기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에 참여한 고등학교 247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 실기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동기 부여와 함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취업에 유리한 바리스타, 제과 제빵, 워드, 운전 면허, 정보 기술 자격, 미용 분야 등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고 취업에 꼭 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원 수강, 교재

구매비, 시험 전령료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펫푸드마스터, 반려동물 관리자, 목공예, 한지공예 초급지도사 등의 분야에서 2022년에 84명, 2023년에 159명의 학생이 자격증을 따는 데 도움을 줬으며, 올해는 학교 현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올해 학생들이 지원한 분야는 바리스타 103명, 컴퓨터 관련 36명, 수제청 음료지도사 25명, 제과제빵 23명, 펫푸드 자격증 19명, 운전면허증(기게차 운전 포함) 10명, 공예 관련 9명, 정리수납.요리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22명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 학생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 희망하는 직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도서관, 'AI시대, 우리가 읽고 쓰는 이유'특강 실시

글쓰기 전문 강사 '이강룡 작가'초청 '자녀의 독해력·문해력 향상'필요성 강의

경상북도교육청 청송도서관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강룡 작가의 'AI시대, 우리가 읽고 쓰는 이유'특강을 운영했다.

EBS 등에서 논술과 글쓰기 강사로 활약했던 이강룡 작가는 AI시대 미디어의 변화 및 우리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잘 읽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소개하여, 기술 발전의 바탕이 되는 독서와 연계한 인문소양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부모(황\*미)는 "요즘 자녀 교육을 휩쓴 화두 중 하

나는 '문해력'인 것 같다. 문해력 저하는 국어능력에 대한 문제를 넘어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특강 내용처럼, 우리 아이의 배움을 확장하고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와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고 전했다.

청송도서관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녀를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4. 13.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도서관 홈페이지(https://

www.gbllib.kr/cs/index.do) 및 전화 872-4905, 4906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 의성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개강식 개최

미래를 이끌 영재들의 새로운 출발, 의성교육지원청 부설영재교육원 개강식 성료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영재교육 참여 학생과 지도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

도 의성교육지원청 부설영재교육원 개강식'을 의성창의인성교육관에서 개최하였다.

개강식은 의성교육지원청 부설영재교육원 참여 학생의 입학 허가, 지도교사진 소개 및 위촉장 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방향 안내, 수업 장소 소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성교육지원청 부설영재교육원은 맞춤형 영재교육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를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초·중등 융합반, 초등 발명반, 초등 소프트웨어반 등 총 4개 과정이 운영된다.

개강식에 즈음하여 박병호 교육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융합할

줄 아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의성교육지원청은 깊이 있는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능력과 역량을 향상하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성태동 교육지원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의성교육지원청 부설영재교육원은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학생에게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정금자/기자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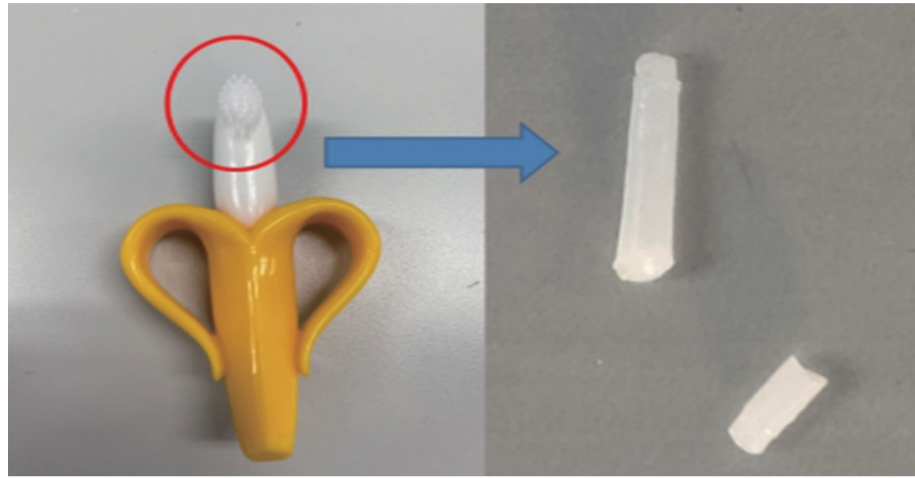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주관: UFTF 영양특산물관장재단



# 유해 물질 범벅 해외직구 공습...서울시, 소비자 보호 나선다

## 어린이용품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56배 검출



싸다고 덜컥 구매했더니 유해 물질 범벅인 해외직구 공습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 검출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리스트는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2022년 5.3조, 통계청) 28.3% 증가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특히 급성장 중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 수가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

다. 후발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 10개 브랜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이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나무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형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킴 등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일명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

르게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대학생 사회관계망(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중장년층에는 영상 위주의 유튜브 등을 통해 저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

## 시 지난달 실태 점검 후 피해 예방 유의 안내문 공고

용인특례시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흥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자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리와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치가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산·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혜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혜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혜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 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의정부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4월 22일부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친환경적 음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0㎡ 이상 일반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 및 적정량 제공, 나트륨 줄이기 실천, 조리장 등 청결도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영업자가 자율점검이 가능하도록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교육, 식중독 예방수칙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심식당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등 홍보를 실시해 식품 위생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상자별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고양특례시

2024

#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주시

# 2025년 APEC 정상회의

#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